

■ 선교사

- 이름: 양달순 선교사,
최성숙 선교사
- 파송연도: 2008년
- 사역지역: 말라위

■ 사역내용

현지 교회 협력, 주일학교 및 어린이 사역

말라위 현지 교회들에 참여하면서 교회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재정, 행정, 교육 등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이나 구제 물품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 특별히 이곳 말라위에서는 교회의 활동과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어른 중심으로 맞춰져 있고, 어린이 주일학교나 어린이 선교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무척 부족하고 주일학교에 대한 교회의 예산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재 등도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돕는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2011년부터 2017-8년도까지 아프리카 중앙장로교회(CCAP) 소속인 침발라메 본부교회와 코체라, 므웨네라, 시리자, 므주 등 4개의 지부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
- 므웨네라와 시리자 교회가 2019년도부터 지부교회에서 독립교회가 된 이후 침발라메 본부교회와 므주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어린이 사역 (작년 말, 코로나 관련 정부의 종교시설 회집 금지 명령 전까지)
- 어린이 전도사역
- 교사 및 어린이 성경공부 및 시청각 교재 제작, 배부

학원 사역 및 장학 사역, 컴퓨터 사역

- 지역교회가 교회 건물을 이용하여 평일에 운영하는 학교, 일반 지역학교, 기타 NGO 등에서 운영하는 학교 등에 배움교재 제작 배부, 학교 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합니다.
- 교회와 기관, 학교 등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지원(6개월 또는 1년 계약으로 컴퓨터 또는 프린터 무상 임대, 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 종료 또는 계약 연장)하여 컴퓨터 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원래는 컴퓨터 교육센터를 지어서 거기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컴퓨터들을 준비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대신에 현재 선교목적의 무상임대 및 관리, 교육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마블 힐 대학교(Marvel Hill University)의 컴퓨터실을 사용하여 교회 교역자, 대상 기관의 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컴퓨터 자판 인쇄물을 이용하여 타이핑 하는 법 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사역 대상의 아이들 중에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바, 2020년 작년 기준으로 중학생 4명, 대학원 생 1명이었으며, 지출된 총 금액은 원화 기준 755,200원입니다.

영상 사역

부활 주간과 크리스마스 주간, 그외에 현지 교회들의 전도 집회 시 요청을 받아 준비된 영상을 현지어인 치체와 자막과 함께 상영합니다. 복음영화와 그리고 이곳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화들을 선별해서 계속해서 이곳의 치체와로 자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서 사역 및 찬송가 제작 및 배부 사역

- 2018년부터 찬송가 제작하고 배부하는 사역을 시작했고, 교회와 어린이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사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작 비용이 충당될 때마다 하는 비정기적 사역입니다. 말라위 교회에서 예배시 사용하는 찬송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를 구입할 형편이 안되는 교인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찬송가 무료로 제작해서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 선교비 예산으로 제작이 진행되고, 때로는 현지에서 찬송가 제작에 필요한 후원을 얻기도 합니다. 찬송가 한권당 제작 비용은 한화 1,500원 정도입니다.
- 가닝아 CCAP 교회에 소속된 “교도소 선교회”에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찬송가 각각 70권을 제공하고, 그 교도소 선교회에서 교도소를 방문하여 재소자들에게 찬송가를 제공합니다.
-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대상의 학교 교재등을 개발하고 제작합니다.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는 학교 설립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고 있고, 현지 학교나 NGO 등에서 필요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성경공부 교재를 제작하고 필요한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말과 영어, 말라위 치체와 언어로 제작되고 이 작업에는 현지인 목회자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진행되고 이 성경공부 교재로 함께 성경공부와 말씀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사역

말라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말라위에서 유력한 의사들과 정치인들의 사망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말라위 정부가 지난 1월 3주간 락다운을 발표한 이후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집에 있는 사무실에서 어린이 시청각 및 주일학교 교재, 성경공부 교재, 학교 배움 교재들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선교센터 부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저의 둘째 누님의 병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둘째 누님은 구리 돌다리 교회의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고, 제가 병약할 때 시집도 가지않고 제가 결혼 때까지 돌보아 주었던 엄마와 같은 분이며, 지금까지 저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 중 한 분입니다. 지난 4월 30일에 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척추와 골반 등 전신에서 확인된다는 진단결과를 받았습니다.
- 영육간에 탈진하지 않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곳에서 더욱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하고 있는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교회와 어린이 사역, 영상과 컴퓨터 사역, 문서 사역들을 잘 감당할 믿음을 날마다 더하시고, 어려움과 방해들을 이겨낼 힘을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말라위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말라위와 국민들, 특별히 말라위 교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주세요.

말라위가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코로나 검사진행 건수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검사진행 건수가 적은 것은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는 말라위 국민들은 미화 50불, 외국인은 미화 100불을 지불해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지불하기에는 매우 비싼 금액입니다.

또한 가끔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많은 경우에 장례식에 왔었다고 할 정도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만 대부분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인지를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올해 몇 차례 방역 및 구제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현지 교회 방문할 때마다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는 마스크 착용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나 종교 회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의 장례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 릴롱웨 은제와 지역 소재의 땅에 필요한 건물들이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예배당 건물과 어린이 교육에 사용될 센터 건물이 건축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릴롱웨 은제와 지역에 어린이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서 구입한 땅이 있고, 다만 건축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까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28일에 현지인 주민 중 한 명이 그 땅을 자기가 주인인체 하며 다른 이에게 매각했고 그 구매자가 그 땅을 말라위 토지국에 변호사를 통하여서 새로운 땅 주인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후에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경찰신고와 경찰 조사, 지역 추장들 모임과 재판 등을 통해서 말라위 구매자의 토지소유권이 취소되고, 제가 원 주인인 것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이런 류의 토지매매 사기는 말라위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말라위 정부도 이번에 새로운 법을 발표하면서 토지 구매 후 2년이내에 개발을 강제하는 법을 발표한 바가 있어, 이번 건과 같은 매매 사기 등의 일을 방지하고 이곳 선교에서 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예배당 건물과 어린이 선교센터가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 기도하고 있는 학교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Golden Kids Academy”로 학교 이름은 등록을 했고, 그동안 다른 학교들을 학습교재나 행정등을 지원한 경험과 자료들로 선교를 위한 어린이 학교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며,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집 또는 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